



## 자동차의무보험 영업수지 적자규모 지속 확대

이소양 연구원

■ 8월 10일 중국보험협회는 2011년 중국 자동차의무보험 영업수지 적자가 자동차의무보험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인 92억 위안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.

- 2011년 자동차의무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운용 수익은 각각 914억 위안, 20억 위안을 달성했지만 지급보험금 및 사업비는 각각 749억 위안, 277억 위안을 기록하였음.
- 자동차의무보험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되었고 영업수지 적자는 2009년, 2010년에 각각 29억 위안, 72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.
- 현재 전국에 공통적인 ‘자동차 의무보험 조례’를 적용한 상황에서 영업용 차량과 동부지역에서의 배상금액 상승은 자동차의무보험 영업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원인이라고 분석됨.
  - ‘자동차 의무보험 조례’에 따라 영업용과 가정용 차량은 구분 없이 같은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하고 동부지역은 서부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은 기준요율을 적용함.
  - 2011년 영업용 차량의 영업수지 적자는 73억 위안, 강수, 절강, 상해, 안휘, 산둥 등 동부지역의 영업수지 적자는 63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각각 총 영업수지 적자의 79%, 69%를 차지함.

■ 자동차의무보험 영업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외자계 보험회사들은 자동차의무보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게 자동차의무보험 운영자격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음.

- 보험가입자가 같은 회사에 자동차상업보험과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월부터 외자계보험회사에게 자동차의무보험시장을 개방한 이후 AIG, 리버티 뮤추얼, 삼성 등 보험회사들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게 자동차의무보험 운영자격을 신청하였음.
- 한편, 자동차보험시장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민재산보험은 작년에 자동차의무보험 영업수지 적자가 40억 위안에 달했지만 자동차상업보험 영업수지 수익이 87억 위안을 기록, 자동차보험 영업수익이 47억 위안으로 나타났음.

(신량망, 하원망, 신화망, 8/14)